

지역 매 아 리

# 김제시, 일자리 콘텐츠 발굴

김제시 열매 지역아동센터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전북은행이 22일 김제시 신흥동 소재 열매 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주현) 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오픈식을 마련했다.

이날 오픈식은 여성가족과 아동복지 담당을 비롯하여 전북은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북은행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조성해 미래의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돕고자 하는 생활개선타기사업이다.

선정된 열매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개소하여 28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등 방과 후 돌봄을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원교 아동복지담당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김제시보건소 선정

김제시보건소는(소장 김형희)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6월부터 지역 내 3개 보건기관을 원격의료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와 컴퓨터(CT)·화상통신·정보통신기술 등 원격의료 기반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및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취약지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전북에서 2019년 최초로 시범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청년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원격협진(화상진료)을 실시하며, 보건진료소에서 지정된 의약품 외에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은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처방이 가능해졌다.

김제시보건소는 본격적인 원격협진(화상진료)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담당 공무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현재 3개소 선정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대상자 선정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발대식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22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부제: 신중년을 통해 김제를 보다, 있다, 있다)참여자 32명을 대상으로 발대식과 사업의 취지 및 세부추진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시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업 수행기관인 김제문화원과 함께 오는 5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문화예술, 복지, 농업 분야 전반에 걸친 지역자원 전수조사에 돌입

할 예정이다.

19개 읍면동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바탕으로 마을의 역사, 인물, 음식 등 지역자원을 직접 현장 인터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화하고 지역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년, 신중년, 노인 등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김제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콘텐츠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박준배 김제시장이 '세계경제사유기'지 '세만금 김제'를 주제로 직접 특강을 하여 김제 미래에 대한 비전

을 제시하고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베이비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요즘 이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퇴직경력자를 비롯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계하여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이란 5060세대를 지칭하는 신(新)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창출하여, 지역현안을 해결과 신중년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주민 "이서면 헬기 운항 즉각 중단하라"

22일 전주항공대대 앞 대규모 집회  
정치권도 "끝까지 투쟁" 비장한 결의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이 전주항공대대의 이서면 헬기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대적인 추구에 나섰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 600여 명이 22일 전주시 도도동 전주항공대대 앞에서 "전주항공대대가 완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이서면 상공을 헬기가 수시로 저공비행하는 등 심각한 소음을 발생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서면 헬기 노선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이날 "당초 항공대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에는 헬기가 완주군 상공을 비행하는 안(案)이 아예 없었다"며 "완주군민을 우롱하고 이서면 주민을 심각한 고통에 빠뜨리는 헬기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특히 "10만 완주군민들은 전주항공대대의 완주군 상공 헬기 운항이 중단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이서주민을 죽이는

항공대대 이전 관련자도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규모 켈기대회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동원 완주군의회 의장이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했으며,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완주군상공일방직침범항공노선반대주민대책위 위원, 주민들이 대거 참여했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집회는 대책위 공동대표인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의 대회사로 시작으로, 집행위원장인 안중기 이장협의회회장의 경과보고, 대책위 공동대표인 윤수봉 완주군의회 부의장의 대회사, 대책위 위원들의 투쟁사,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연합회 부회장의 성명서 발표로 이어졌으며, 대책위 대표단은 항의서언을 전주항공대대에 전달했다.

이세우 공동대표는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과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 될 때까지 헬기 운항을 정지해야 한다"며 "전주시의 밀실행정으로 야기

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항공대대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행정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주군과 전혀 이행한 바 없다"며 "완주군 상공에 단 한 대의 헬기도 운항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봉 군의회 부의장은 "국방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완주군 상공에 수시로 헬기를 운항해 주민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항공대대는 이서면 상공의 헬기 운항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저공비행 헬기소리만 들어도 전쟁이 재현된 것 같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완주군의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하는 전주항공대대 헬기 비행노선의 모든 계획과 향후 추진에 결사 반대한다"며 "항공대대가 주민 요구를 또다시 묵살한다면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문화재단, 비상근 선임직이사 및 감사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완주의 문화예술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비상근 선임직이사 및 감사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채용 인원은 6명(비상근 선임직이사 5명, 비상근 선임직감사 1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선임직이사는 재단의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임직감사는 재단 재산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며, 이사회에서 재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 역할을 맡게 된다. 비상근 무보수로 회의참석 시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응시원서는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서류심사평가를 걸쳐 이날 말에 선정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경영지원팀(063-262-3955)이나 홈페이지(www.wf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2018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김제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이 3년 연속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김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3년 연속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

전북도 1위 기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김제시 3개 복지관(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김제사회복지관, 김제제일사회복지관) 모두 최우수등급인 'A' 등급을 받으며 특히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 2015년, 2018년 3회 연속 상위 5%, 전북도 1위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전국 46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성과에 대해 시설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을 총괄적으로 전문평가단이 평가하였다.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설치되어 아동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소통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권영세 관장은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김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분들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이 하나 된 결과"라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박성일 군수, CEO경제포럼 기업인들 소통

솔라파크코리아 7300억 수출협약 체결도

완주군에 기업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22일 완주 봉동에 위치한 ㈜솔라파크코리아에서 완주군이 주최하고 우석대학교가 주관한 제13차 CEO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CEO 경제포럼은 완주군의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의 장으로, 유명 강사를 초빙해 지역 CEO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 수비 샤르마 솔라리아 대표를 비롯해 박성일 완주군수, 송하진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최등

원 완주군의회 의장 및 관계 기관단체장, 지역의 CEO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강은 경제분야 권위자인 과수종교수가 강사로 나서 '세계경제 흐름과 국내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중 경제상황 및 국내경제 흐름과 함께 완주군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포럼에 앞서 ㈜솔라파크코리아와 미국 태양광 업체 솔라리아는 7300억원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 수출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았다.

솔라파크코리아와 솔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4개 기관이 상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명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